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다해) 주님 공헌 대축일

입당 : 487 파견 : 107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시편 72, 1-2, 7-8, 10-11, 12-13)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Psalm 72:1-2, 7-8, 10-11, 12-13)

- O God, with your judg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ment. ◎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
- The kings of Tarshish and the Isles shall offer gifts; the kings of Arabia and Seba shall ring tribute. All kings shall pay him homage, all nations shall serve him. ◎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문 (2)

문을 부산하게 지나서는 안되겠다. 침착한 걸음으로, 마음의 귀를 기울여 이 말에 유의하면서 들어오가기로 하자. 아예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의 몇 발짝 걸음이 정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면 더욱 좋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을 일단 들어서면 절로 고개를 들게 되고 눈길이 위로 간다. 앞으로 길게 높이 트인 시원한 공간을 시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가슴속도 아울러 넓어지는 느낌이다. 성당 안의 높이 솟은 공간은 무한한 영원과 하느님이 머무시는 하늘을 모방하는 것이다. 산들도 그보다 높은 훨씬 높고 그 위의 푸른 하늘도 끝없이 높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다 할 형태도 한계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반면 성당이 이루는 공간은 하느님만을 위해 선정되어 있다. 하느님만을 위해 이룩되고 성화되어 있다. 곧게 솟은 기둥, 넓고 튼튼한 벽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지, 여기가 하느님 계시는 집이지” 하고 따로 느끼게 된다.

성당 문은 인간을 바로 이런 신비로 이끌어준다. “옹색하고 초조한 생각은 말끔히 버리시오. 우울한 느낌도 잊으시오. 가슴을 활짝 펴고 눈을 맑게 뜨고 마음을 푸시오. 여기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또 당신의 모상이요. 그것은 당신이 몸·마음 할 것 없이 하느님의 산 성전인 까닭이요. 당신의 그 성전도 활짝 열고 해방시켜 들어높이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문들아 일어서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신다.” 고 성영(聖詠)은 부른다.

이 부름을 듣자.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산 거처가 못되면 나무와 돌로 쌓아올린 성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높고 묵직한 성전 문을 열어본들 우리 안의 문이 안 열려 영광의 임금님이 들시지 못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월 5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한국학교 일정

2학기 등록접수 : 1월 5일, 2층 교무실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 (1/11 까지)
문의 : 교장 이유정 마르타 ☎ 310-722-0175
103skccks@gmail.com

▶ 안나회 모임

일시 : 1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본당신부님과 신자개인면담

기간내에 개인면담을 아직 하지 못한 각 반원들과
반모임에 속하지 않아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자들은
계속 면담이 가능하오니 시간을 내셔서 미사 후 집무실로
오셔서 면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수·목·금·토 미사 후, 주일 교중미사 후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이태석 신부 선종 15주년 기념 사랑의 콘서트

- 1) 일시 : 1월 25일(토), 저녁 6시
- 2)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3) 행사내용 : 뮤지컬 슈쿠란바바, 백삼위 성가대 합창,
가야금연주 외
- 4) 참가신청 : event.shukuranbaba.com
- 5) 문의 : info.cfacm@gmail.com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식사 및 좌석배정을 위해 반드시 RSVP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9,485.00
주일헌금 \$	2,746.25
대축일헌금 \$	2,421.00
감사헌금 \$	500.00
미사예물 \$	3,340.00
합 계 \$	18,492.25

강인모	구자운	금동균	김 용	김관기	김교복	김권일
김명숙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김영재	김충섭
나경흠	남성철	문상헌	문성길	박근식	박운모	박정자
박준범	박진희	배난균	배태임	서용숙	서창호	송순자
송호창	신동윤	오세원	오영섭	위진록	유경자	유기성
윤희동	이상철	이영석	이윤희	이정미	이정수	이정훈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은아	조영우	최길주	최민아
최성자	한창주	현석주				